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 286-9206)
<http://www.jthink.kr>

▪ 담당부서 :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
(063-280-7141)

▪ 문 의 :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
(063-280-7141)

보도시점 : 2021년 2월 03일(10시)부터

“국제행사 효과 지속·확산 위한 관련 국제기구 유치해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국제기구 유치여건 개선 국제적 접근성 개선, 인적·물적 국제화 기반 마련 필요

-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이슈브리핑(239호)에서 전라북도가 유치한 국제행사 효과를 지속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전북연구원 이강진 연구본부장은 전라북도가 ‘2017세계태권도대회’, ‘2022년 아태마스터스대회’,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국제행사 유치 성과의 확산 및 지속화를 위해 관련 국제기구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제기구 유치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며 국제행사와 연계한 국제기구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지방재원 마련 근거가 확보되어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국제기구 유치가 가속화 되고 있다.
- 각국은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다양한 입지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를 제공을 보장하고 있다. 국제기구 유치는 경제부문에서 국제회의 유치, 관광컨벤션 산업 활성화,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치외교부문에서 국제사회에서의 ‘soft power’ 위상 강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증대에 따른 국가이익 제고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사회부문에서 국제시민으로서의 의식제고, 국제화 전문가 양성을 통한 국제기구 진출 효과, 그리고 무형의 자산으로서 지역의 국제인지도 향상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 전북은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2023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 중요한 국제 행사 유치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유치해야 한다. 특히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설비투자가 요구되지 않고 다양한 생활체육인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아태지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국제기구의 역할도 커질 것이므로 유치효과는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 전북은 도내에 국제기구 유치사례가 없고 수도권에 비해 국제기구 유치설립을 위한 인적, 물적,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국제기구 유치설립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차원의 국제기구 지원에 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도와 의회와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사전협의를 통한 기능역할 정립으로 설립타당성을 제고, 중앙부처 주관 협정체결 유도를 통한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에 노력한다면 국제기구 유치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이강진 연구본부장은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도의회, 중앙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소통, 국제적 접근성 개선 및 시민의식 함양과 같은 지역의 국제화 기반 마련, 국제기구 파견인력들의 정주·생활 인프라 구축, 전북도민의 국제시민으로서의 soft power 능력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전라북도가 글로벌 새만금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그 첫걸음은 ‘아태마스터스협회(가칭)’ 와 같은 전라북도가 유치한 국제체육행사 관련 국제기구 유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